

전봉관의 《경성기담》 깊이 읽기

물질만능주의로 훼손된 인간성, 사람 냄새나는 인문학으로 회복하다

글_ 송현호 이주대 교수 한·중인문학회장·한국현대소설학회 부회장

《경성기담》은 명사들의 사생활 탐구를 통해 새로운 인문학 연구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조선 시대의 미스터리들은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다루지 않은 사건들이지만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들이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식민지 조선을 뒤흔든 4건의 미스터리 살인사건으로 채워져 있다. 조선인이 조선인을 살해한 죽점정 단두 유아 사건, 조선인이 일본인을 살해한 안동 가와카미 순사 살해 사건, 일본인이 조선인을 살해한 부산 마리아 참살 사건,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인 살인마교 백백교 사건 등이 그들이다. 제2부는 식민지 조선을 뒤흔든 6건의 스캔들로 채워져 있다. 중앙보육학교 박희도 교장의 여제자 정조 유린 사건, 채무왕 윤택영 후작의 부채 수난기, 이인용 남작 집안 부부 싸움, 이화여전 안기영 교수의 애정도피행각, 조선의 노라 박인덕 이혼 사건, 조선 최초의 스웨덴 경제학사 최영숙 애가 등이 그들이다.

이가 아사하거나 유기되고 있었다. 세계적인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경성 시내 한복판 죽점정에서 대낮에 몸통 없는 아이 머리가 발견되자, 전 경찰서에 비상이 걸렸다. 잃어버린 몸통을 찾는 과정에서 경성의 베일이 벗겨진다.

안동 가와카미 순사 살해 사건은 당시 식민 지배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당시 조선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일본 순사들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무고하게 죽어갔고, 가와카미 순사처럼 비명횡사한 일본 순사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적인 수사를 자랑하던 일본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행한 강압적인 수사와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판결은 오늘날에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관행이다.

부산 마리아 참살 사건은 식민지 백성이 감내해야 했던 억울한 사건이면서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마리아 변홍례는 일본인 고위 관료의 하녀로 지내던 중 처참히 살해당했다. 범인은 안주인 다카하시 히사코이거나 정부인 이노우에 슈이치였다. 아니면 두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조선인 때문에 일본인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수사 당국은 시종일관 히사코를 감싸고 돌다가 종내는 이노우에마저 무죄방면했다.

살인마교 백백교 사건은 식민지 시대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후죽순처럼 자생한 사교집단이 자행한 반인륜적 사건이다. 백백교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조선에서 발생할 홍수에서 현금을 한 백백교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현금액에 따라 관직을 제수할 것이라고 속여 교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 뿐만 아니라 교도들의 정조를 유린하고 교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백 명의 교도들을 살해하여 암매장했다.

단두 유아 사건은 당시 치안상태의 치부름 여지없이 드러낸다. 총독부가 자랑한 것과 달리 경성은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다. 미신과 무지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술한 어린



《경성기담》은 명사들의 사생활 탐구를 통해 새로운 인문학 연구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조선 시대의 미스터리들은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다루지 않은 사건들이지만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들이다.

중앙보육학교 박희도 교장의 여제자 정조 유린 사건은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박희도 중앙보육학교 교장이 여제자와 '키스 내기 화투'를 치고 그녀의 정조를 유린한 사건이다. 일제에 의해 조작된 사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박희도와 여제자 그리고 그녀의 남편 사이에 충격적인 폭로전이 이어지고, 사건은 바야흐로 점입가경이 된다. 이 일로 박희도는 교단을 떠나지만 친일 행각을 벌여 자신의 오명을 벗을 기회를 상실한다.

채무왕 윤택영 후작의 부채 수난기는 친왕의 대우를 받았던 순종의 장인 해풍대원군 윤택영이 오백만 원의 빚 때문에 몸을 북경의 객창에 두고 파산신청을 하여 객사하기까지의 수난사다.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지만 않았더라면 조선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로 살다가 죽었을 그가 은행과 개인에게 진 빚 때문에 빚쟁이들을 피하여 북경에서 10여 년을 살다가 객사를 한 사건은 몰락을 코앞에 둔 조선 왕실의 부패한 자화상임에 틀림없다.

이인용 남작 집안 부부 싸움은 아내 조중인이 가산을 탕진하자 친척들이 이왕직의 동의를 얻어 재정정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여주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조중인과 이인용 남작 간에 일어난 싸움이다. 재정위원회와 충돌하는 아내에게 이 남작은 대궁을 나가라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쌍방의 송사가 끊이지 않아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이 사건은 나라 팔아먹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조선 귀족들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고 있다.

이화여전 안기영 교수의 애정도피행각은 부와 명예가 보장된 직장파 임신한 아내와 두 딸이 기다리는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느 날 제자 김현순을 데리고 하얼빈으로 사랑의 망명을 떠났다가 갖은 고생 끝에 4년 만에 귀국한 안기영과 김현순의 이야기이다. 교육계와 교회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기피했지

만 안기영은 조선의 악단에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조선의 노라 박인덕 이혼 사건은 신여성의 선두 주자로 한국여성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박인덕의 일대기다. 그녀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기하, 체육, 음악을 가르치다가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학생들을 선동한 죄목으로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재색을 겸비한 그녀는 배재학당 출신 청년 부호 김운호와 결혼하여 살다가 자신의 자아를 신장하기 위하여 이혼하고 여성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조선 최초의 스웨덴 경제학사 최영숙 애가는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에서 경제학사가 되어 금의환향한 최영숙이 조선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콩나물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스물일곱의 꽃다운 나이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슬픈 이야기다. 오로지 조선의 꺾박 받는 노동자와 여성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귀국했다가 사회의 냉대를 견디지 못한 그녀를 통해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들의 비극적인 삶을 읽을 수 있다.

인문학에서 즐겨 다루던 명사들은 한결같이 이상적이고 위대한 인간들이다. 그것은 그들의 공적인 삶을 통한 평가다. 그런데 인간다운 삶이나 인격적인 완성과 같은 사생활을 공적인 사건과 연결지을 때 충돌이 일어난다. 저자는 명사들의 사생활을 추적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 동시대 우리들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훼손된 인간성은 바로 사람 냄새나는 인문학을 통해서라야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 것 이리라. ■